泰불교계, 디지털 호신부 대중적 인기

NTF 아트로 제작, 실제 스님들 축원도 담아

박영빈 객원기자


NTF로 만들어진 호신부의 모형. 사진출처=AFP 통신

사찰에서 제작한 호신불이나 호신부를 몸에 지니는 전통은 대다수의 불교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표적인 상좌부 불교국가인 태국에선 '프라쿠르안(Prakuran)' 이라 불리는 호신불이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종이나 흙 등으로 제작되는 프라쿠르안이 디지털 아트로 등장해 화제다. 8월 22일, 'AFP 통신'과 '야후재팬 뉴스' 등의 외신은 디지털화 된 호신불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프라쿠르안(Prakuran)' 은 일반적으로 불상이나 불탑의 형상으로 조성된다. 개중에는 유명한 고승의 모습이나 태국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모양도 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내 각지의 사찰에서 만들어지며 스님들의 축원을 통해 완성된다. 보통은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 형태로 나오지만, 개중에는 벽걸이 액자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영험담이 전하고, 예술적인 가치도 높게 인정되면서 프라쿠르안의 인기는 매우 뜨겁다. 이와 함께 수집과 판매가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까지 발전, 그 경제적 가치는 태국 내에서 널리 인식돼, 부동산 등 고액의 거래에서 프라쿠르안이 담보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시장성에 맞춰 NTF(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된 프라쿠르안이 등장했다. 이미 NTF로 제작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해외 유명 경매에서도 수백억 원에 NTF작품들이 거래되는 등 그 시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NTF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암호자산으로 최근 미술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암호화 되었단 점에서 프라쿠르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진품의 여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NTF 호신부를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한 엑카퐁 켐통(Ekkaphong Khemthong)은 "나 자신도 호신불과 호신부를 수집하고 있다. 외국인과 해외에 태국의 프라쿠르안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회사를 세웠다"고 전했다. 엑카퐁은 NTF로 제작된 호신부들이 전통적인 호신부들과 동일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인 호신부 축원법요도 진행했다.

지난 6월 엑카퐁씨의 화사에서 진행된 법요식에서는 태국에서 존경받는 루앙 프헹 스님을 법주로 진행됐다. 루앙 프헹스님은 불단에 설치된 NTF 모형 호신부에 발우의 물을 뿌리며 호신부를 축원했다. NTF 호신부를 개발한 싱가폴의 개발자 다에 찬은 "NTF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트이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모형에 축원하는 식으로 법요를 진행했다. 루앙 프헹 스님께는 '사진으로 인쇄된 프라쿠르안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고 설명드렸다. 스님께선 기꺼이 축원에 응해주셨다"고 전했다.

NTF 프라쿠르안을 구매한 한 고객은 "NTF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주셨고, 복제할 수 없는 진품이라는 점에서 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NTF 호신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집가는 "호신부와 호신불은 직접 보고, 만지고 예경하는 등 특정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확신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암호화된 자산으로 진품을 만든다고 한들, 직접적으로와 닿지 않는 NTF에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美불교연맹, 지역사회에 구급차 기부

코로나 관련 1억 4천여만 원 상당 지원


미국불교연맹의 브루클린 앰뷸런스 기부식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미국불교연맹(The American Buddhist Confederation)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의료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구급차를 기증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미국불교연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욕 브루클린의 마이모니데스 메디컬 센터(the Maimonides Medical Center)에 구급차를 기증했다.

미국불교연맹은 이 구급차를 포함해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접종 관련 지원 기금 등 12만 달러(한화 약 1억4천여만 원)를 기부했다.

마이모니데스 메디컬 센터장인 케네스 깁스는 기증식에서 "미국불교연맹의 자비행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환자 이송 능력과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며 "브루클린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메디컬 센터의 아시아 지원 분야 이사 쟈니스 양도 "이번 기부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웃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국불교연맹에서 제공한 이 구급차는 메디컬 센터의 본관으로부터 암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메디컬 센터 내 아시안 행사에서 교육지원, 건강검진, 의료 자료 운반 등 용도로도 사용된다.

미국불교연맹 밍유(Ming Yu) 회장은 "우리는 힘을 합쳐 서로 도움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지금 출구 없는 재난에 처해있을지라도 이 사회는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인 에릭 애덤스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기부는 브루클린 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커뮤니티에 조달될 백신 지원금 등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회식 '화제'

코로나19로 법회와 회식 등 겸해


절의 본당에서 온라인 회식 이끄는 카메다 노부아키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온라인 법회와 기도가 점차 일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회식이 일본에서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 와 '미나미 니혼 신문' 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오후 8시를 넘긴 늦은 저녁, 일본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간쇼지(願生寺). 아무도 없는 본당에 가사와 장삼을 수한 스님이 노트북 컴퓨터 앞에 술과 간단한 안주를 들고 앉았다. 노트북에는 비디오 회의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천문관 스님바' 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잔을 들고 건배했다.

간쇼지 측은 "온라인 회식은 매달 오프라인으로 모이던 회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을 지난해 5월부터 매달 16일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온라인 회식은 원래 일반 시민들이 불교를 쉽고 재밌게 접하게 하는 이벤트로 실제 가고시마 시내의 천문관에 있는 식당을 빌려 1일 주점의 형식으로 진행하던 행사다. 현장에서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참가자가 각각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온라인을 통해 모이는 것 외에 모든 진행순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을 받는 이 온라인 회식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의 참가자가 일본각지에서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타종교의 성직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참가하거나, 병상에 있는 환자가 "이야기에 참가할 수 없어도 듣기라도 하고 싶다"며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개점' 으로부터 10분간 간쇼지의 주지 카메다 노부아키 스님의 짧은 법문이 진행됐다. 이후 5인 전후의 작은 모임으로 나뉘어 진행자역의 스님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가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온라인 회식에서의 이야기의 주제가 정해지는 날도 있지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무거운 주제가 아니더라도 연애상담이나 살아가는 이야기와 같은 가벼운 잡담들도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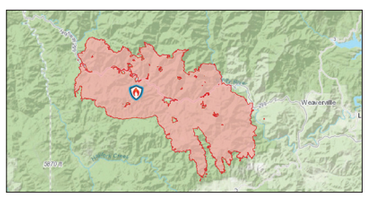
점주 역을 맡은 노부아키 스님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불연이 생겨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회식을 이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참가자인 한 남성은 "실제로 만날 수 없지만, 그 덕에 오히려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며 계속해서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법회와 행사들이 정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다이쇼대학 내의 불교 연구소에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온라인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코로나 시국이 해소되고 나서도 실제로 모이려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자기기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진중한 대답도 상당수 등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캘리포니아 산에 인근 사찰 대피령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 스님 등 긴급 대피


라이언스로어에 게재된 산불 지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몇달째 산불이 번지면서 최근까지 4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 발생 인근 지역 불교 사찰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Aloka Vihara Forest Monastery)과 샤그두그 곤파 릭진 링(Chagdud Gonpa Rigdzin Ling) 스님들이 모두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샤그두그 곤파 릭진 링은 소방대원들의 밤낮 없는 사투로 건물 소실은 막았지만, 사원 전체에 접근 제한 명령이 떨어질 만큼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사원 소속 스님인 라마 파드마(Lama Padma)는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숲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다"고 라이언스로어를 통해 전했다.

이어 라마 파드마는 "지역사회와 산짐승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알로카 비하라 산림 사찰도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이 대피한 상태다. 사원 관계자인 사야 니야니카(Ayya Niyyanika)는 "모든 존재의 안전을 바라며 기도하자"며 "모든 인류가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낙뢰에 의해 시작된 이 지역 산불은 도심까지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 소방 인력 등 2천 명 이상이 진화에 나섰으나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아 지역 재난 선포가 내려질 전망이다.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157만 에이커(6천353㎢)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